

2019년 5월 2일

KIWOOM DAILY

|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서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미 증시, 파월 연준 의장 발언 후 하락 전환 파월 “인플레 하락은 일시적인 요인 때문이다”

미 증시 변화 요인: 미국 인프라투자 발표, FOMC, 미-중 무역협상 타결 임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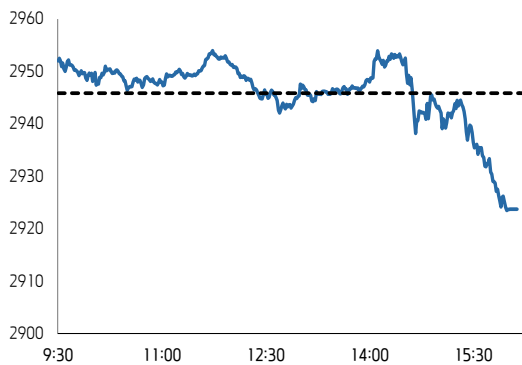
미 증시는 애플을 비롯한 일부 기업들의 양호한 실적과 미-중 무역협상 타결 임박 가능 소식으로 상승. 더불어 미 연준의 인내심 있는 통화정책을 유지한다고 발표하자 상승확대 되기도 했음. 그러나 파월 의장의 다소 매파적인 발언 이후 매물 출회되며 하락 전환(다우 -0.61%, 나스닥 -0.57%, S&P500 -0.75%, 러셀 2000 -0.93%)

미 증시는 트럼프-민주당 인프라투자 합의, 애플 실적 개선, FOMC 와 파월 의장 발언, 미-중 무역협상 타결 임박 소식 등을 기반으로 변화. 전일 트럼프와 민주당 지도부가 2 조달러 규모의 인프라투자에 합의. 3 주 후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고 언급. 시장에서는 트럼프와 민주당이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서로 합의 했다는 점에 주목. 향후 경제와 관련해서는 양당의 마찰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 긍정적

미-중간의 무역협상 또한 타결 임박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옴. 30 일부터 열리고 있는 미-중 무역협상에서 기존의 관세 중 2 천억 달러 규모의 제품에는 관세 철폐 등에는 합의하는 등 진전이 있었다고 보도. 이를 감안 8 일 부터 미국에서 있을 협상에서 타결을 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시. 다만 금융시장에 미친 영향은 제한

연준은 5 월 FOMC 에서 금리를 동결한 가운데 일자리가 견고하고, 인플레는 하락하고 있다고 발표. 지난 3 월과 다른점은 ‘성장 둔화’, ‘인플레 2% 인근에 위치’를 제외시키는 한편, 경기는 개선되고 인플레는 하락하고 있다고 발표. 이에 힘입어 달러화가 약세폭을 높이고, 국채금리는 하락하는 등 비둘기적으로 해석. 그러나 파월 연준의장 발언 이후 국채금리가 급격하게 상승 전환하고, 달러화 또한 강세로 전환. 파월 의장이 “경제는 개선되고 있으며, 인플레 하락은 일시적인 요인 때문” 이라고 주장. 더불어 “금리 변화를 위한 근거를 보지 못했다” 라고 언급해 전일 트럼프의 노골적인 금리인하 요구를 외면. 그러자 시장은 다소 매파적인 발언으로 해석해 금리, 달러는 상승하고 주가지수는 하락 전환. 다만, “자산가격이 많이 오른것은 아니다” 라고 주장해 낙폭 제한에 도움

S&P500 일중 차트



Global Indices

지수	등락률(%)	Close	D-1	지수	등락률(%)	Close	D-1
KOSPI		2,203.59	-0.58	홍콩항셱		29,699.11	-0.65
KOSDAQ		754.74	+0.55	영국		7,385.26	-0.44
DOW		26,430.14	-0.61	독일		12,344.08	+0.13
NASDAQ		8,049.64	-0.57	프랑스		5,586.41	+0.10
S&P 500		2,923.73	-0.75	스페인		9,570.60	+0.56
상하이종합		3,078.34	+0.52	그리스		773.24	+0.06
일본		22,258.73	-0.22	이탈리아		21,881.33	+0.43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 미국과 영국을 제외하면 4월 30일자 지수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복사되거나 대여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금융주 변동성 키우며 하락 주도

애플(+4.91%)은 전일 양호한 실적을 발표하고, 가이던스도 긍정적으로 발표한 데 힘입어 급등 했다. 스카이웍(+0.34%), 브로드컴(+0.16%) 등 주요 부품 업종도 동반 상승 했다. 넷플릭스(+2.23%)는 애플의 팀 쿡이 스트리밍 산업에서 넷플릭스와 공존할 것이라고 발표하자 급등 했다. CVS헬스(+5.42%)도 양호한 실적 발표에 힘입어 상승 했다. 힐튼(+6.45%)은 견고한 실적을 발표하자 상승 했다. 매리어트 호텔(+1.79%)도 동반 상승 했다.

에스티로더(-0.88%)는 스킨케어 수요 증가로 매출 등이 예상을 상회했다고 발표하며 상승 출발 했으나, 차익 매물이 출회되며 결국 하락 전환 했다. JP모건(-0.77%), BOA(-1.05%), 씨티그룹(-1.05%) 등 금융주는 FOMC 이후 변동성을 키우다 장단기 금리차가 축소된 여파로 매물이 출회되며 하락 했다. 알파벳(-2.14%)은 실적 부진 여파로 전일에 이어 오늘도 하락 했다. 암젠(-1.77%)과 휴마나(-3.62%)는 개선된 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매물 출회되며 하락 했다. 퀄컴(+0.28%)는 장 마감 후 실적 발표이후 시간외로 4% 가까이 하락 중이다.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XOP)	-3.39%	대형 가치주 ETF(IVE)	-0.43%
에너지섹터 ETF(OIH)	-3.18%	중형 가치주 ETF(IWS)	-0.96%
소매업체 ETF(XRT)	-1.29%	소형 가치주 ETF(IWN)	-0.76%
금융섹터 ETF(XLF)	-0.82%	대형 성장주 ETF(VUG)	-0.74%
기술섹터 ETF(XLK)	-0.25%	중형 성장주 ETF(IWP)	-1.09%
소셜 미디어업체 ETF(SOCL)	-0.20%	소형 성장주 ETF(IWO)	-1.07%
인터넷업체 ETF(FDN)	-0.88%	배당주 ETF(DVY)	-1.05%
리츠업체 ETF(XLRE)	0.00%	신흥국 고배당 ETF(DEM)	-0.97%
주택건설업체 ETF(XHB)	-0.15%	신흥국 저변동성 ETF(EEMV)	-0.64%
바이오섹터 ETF(IBB)	-0.81%	미국 국채 ETF(IEF)	-0.05%
헬스케어 ETF(XLV)	-0.18%	하이일드 ETF(JNK)	-0.33%
곡물 ETF(DBA)	+0.12%	물가연동채 ETF(TIP)	-0.22%
반도체 ETF(SMH)	-0.77%	Long/short ETF(BTAL)	+0.28%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478.74	-2.17%	-3.85%	-2.83%
소재	353.23	-1.84%	-1.63%	-0.19%
산업재	653.03	-0.75%	-1.26%	+1.24%
경기소비재	941.37	-1.13%	-1.23%	+3.27%
필수소비재	586.68	-1.17%	+0.29%	+2.21%
헬스케어	1,030.29	-0.30%	+2.13%	-2.96%
금융	460.97	-0.86%	+1.43%	+5.37%
IT	1,378.01	-0.27%	-0.42%	+4.28%
커뮤니케이션	166.37	-0.67%	-0.58%	+3.59%
유틸리티	294.58	-1.06%	+0.55%	+0.41%
부동산	223.16	+0.04%	+0.66%	-1.10%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한국 주식시장 전망

조정 지속 예상

MSCI 한국 지수 ETF 는 0.78% MSCI 신흥 지수 ETF 도 0.75% 하락 했다. 야간선물은 휴장인 가운데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164.55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4 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중 무역협상 타결이 임박했고, 파월 연준의장이 미국 제조업 및 소비지출이 강해졌다는 언급해 향후 한국 수출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전일 발표된 4 월 한국 수출입 통계에서 수출이 전년 대비 2.0% 감소에 그치는 등 수출 둔화 속도가 완화되고 있다. 조업일수를 감안한 일평균 수출액은 6.1% 감소했으나 이 또한 예상을 상회하는 등 나쁘지 않은 모습이다. 이러한 수출입 통계에 힘입어 향후 한국 기업들의 영업이익 전망치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투자심리에 긍정적이다.

그러나, 파월 의장의 발언 이후 달러화가 강세로 전환하고, 국채금리도 상승 하는 등 시장이 다소 매패적으로 해석한 점은 부담이다. 더 나아가 미-중 무역협상 타결 등은 이미 시장에 많은 부분 반영이 되어 있어 차익 매물 출회 욕구를 높일 수 있어 긍정적으로 해석되지는 않다는 점도 부담이다. 더불어 중국에 이어 미국의 제조업지표가 둔화되는 등 경제지표 부진도 투자심리 위축 요인이다. 한국 증시는 이러한 변화 요인을 감안 매물 출회 가능성이 높아 부진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경제지표 결과

미국 제조업지표 둔화

4 월 미국 ISM 제조업지수는 전월(55.3) 보다 둔화된 52.8 로 발표되었다. 세부항목을 보면 신규수주 (57.4→51.7), 생산지수(55.8→52.3), 고용지수(57.5→52.4) 등 대부분이 하락 했다.

3 월 미국 건설지출은 전월 대비 0.9% 감소 했다. 2 월 발표치도 전월 대비 1.0%에서 0.7%로 하향 조정되는 등 대체로 둔화되는 경향이다.

4 월 ADP 민간고용보고서에서 비농업고용자수는 전월(15.1 만건)이나 예상치(18.1 만건)을 상회한 27 만 5 천건을 기록했다.

상품 및 FX 시장 동향

달러화 변동성 확대되며 강세로 전환

국제유가는 미-중 무역협상 타결 기대가 높아지고, 유로존 경기 둔화 우려가 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락했다. EIA 가 지난 주 미국 원유재고가 993 만 배럴 증가했다고 발표하고 가솔린도 92 만 배럴 증가했다고 발표한 점이 부담이 되었다. 다만, 베네수엘라 정치 불확실성 부각, 사우디아라비아 감산 지속 발표로 낙폭은 제한 되었다.

달러화는 유로화 강세 영향으로 여타 환율에 대해 약세를 보였다. 특히 경기 침체를 겪고 있던 이탈리아의 GDP 성장률이 0.2% 증가로 발표되며 침체를 탈피한 점이 유로화 강세 요인이었다. 더불어 미 연준이 FOMC 를 통해 여전히 온건한 통화정책을 발표하자 달러화 약세는 좀더 이어졌다. 그러나 파월 연준의장이 미국 경기는 개선되고 인플레이 하락은 일시적이라고 주장하자 달러화는 여타 환율에 대해 강세로 전환하는 등 변동성이 컸다.

국채금리는 FOMC 결과 발표 이후 잠시 낙폭을 확대하기도 했다. 그러나 파월 연준의장이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표명하고, 인플레이 하락이 일시적인 요인에 기인한다고 주장한 이후 낙폭이 급격하게 축소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후 보험권에서 등락을 보였으며, 단기물의 반등이 더 컸다.

금은 FOMC 결과를 기다리며 보험권 등락을 보이다 소폭 하락 마감 했다. 구리 및 비철금속은 상품시장에 대한 투자심리 위축으로 매물 출회되며 하락 했다. 중국 상품선물시장은 휴장이었다.

주요 상품	증가	D-1(%)	D-5(%)	주요 통화	증가	D-1(%)	D-5(%)
WTI	63.60	-0.49	-3.48	Dollar Index	97.681	+0.21	-0.50
브렌트유	72.18	+0.17	-2.25	EUR/USD	1.1193	-0.20	+0.34
금	1,284.20	-0.12	+0.38	USD/JPY	111.41	-0.01	-0.70
은	14.729	-1.70	-1.78	GBP/USD	1.3047	+0.12	+1.12
알루미늄	1,815.00	+1.00	-3.04	USD/CHF	1.0179	-0.14	-0.25
전기동	6,235.00	-2.81	-3.30	AUD/USD	0.7014	-0.48	-0.01
아연	2,771.00	-1.93	+1.06	USD/CAD	1.3444	+0.42	-0.36
옥수수	368.50	+1.66	+3.51	USD/BRL	3.919	-0.60	-0.07
밀	436.00	+1.69	-0.57	USD/CNH	6.7343	-0.04	-0.01
대두	851.75	-0.26	-1.96	USD/KRW	1168.20	+0.84	+2.31
커피	91.10	-2.20	-1.35	USD/KRW NDF1M	1164.55	+0.13	+0.84

10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미국	2.502	-0.01	-1.64	스페인	0.998	0.00	-7.20
한국	1.845	-2.10	-7.70	포르투갈	1.111	-0.10	-5.60
일본	-0.040	0.00	-0.30	그리스	3.358	+5.90	+4.90
독일	0.013	0.00	+2.50	이탈리아	2.553	-0.10	-7.90